

0-3 패 · 패 · 패 · 패...

축구 한일전 암흑기 도래하나

지난해 3월 요코하마 참사 시작으로 연령별 · A대표팀 '0-3' 4연패

한국 축구가 일본만 만나면 작아지는 '흑역사'를 쓰기 시작했다.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이 27일 오후 7시 20분 일본 아이치현 도요타의 도요타 스타디움에서 열린 일본과 2022 동아시아축구연맹(EAFF) E-1 챔피언십(동아시아컵) 남자부 최종 3차전에서 후반에만 내리 3골을 허용하며 0-3으로 완패했다.

2위로 밀려나며 일본(2승무 승점 7)에 우승을 넘겨줘 대회 4연패는 무산됐다.

결과는 처참하고, 무기력한 경기력과 실종된 투지가 더 큰 실망감을 줬다. 원활하게 굴러간 일본과 큰 대조를 이뤘다.

특히 충격이 큰 건 지난해 3월 요코하마에서 열린 평가전에서 0-3으로 진데 이어 다시 한번 같은 스코어로 완패했다는 것이다.

역대 한국이 일본에 연패를 당한 건 세 번이다.

1997년 11월 서울에서 열린 1988 프랑스로 월드컵 최종예선(0-2), 이듬해 3월 요코하마에서 벌어진 다이너스티컵(1-2)이 첫 연패였다.

당시 월드컵 최종예선 패배가 있었지만 도쿄 원정에서 값진 승리를 거둔 이후였기 때문에

충격이 크지 않았다. 월드컵 본선 진출도 유리한 상황이었다.

두 번째 연패는 2011년 8월 삿포로에서 열린 평가전(0-3), 2013년 7월 서울에서 열린 동아시아컵(1-2)이다. '삿포로 참사'는 당시 조광래 감독 경질의 빌미가 됐다.

그리고 벤투호의 2년 연속 0-3 참패다. 월드컵을 불과 3개월여 앞둔 상황에서 유럽과 주축 선수들과의 격차를 확인했고, 뚜렷한 대안을 찾지 못하는 결과를 받았다.

물어보면 일본 공포증이라도 빠진 모습이다. 최근 연령별 대표팀도 일본에 만나면 고개를 숙였다.

지난 6월 16세 이하(U-16) 대표팀이 일본에 0-3으로 졌다. 불과 4일 뒤, 황선홍 감독이 이끄는 23세 이하(U-23) 대표팀 역시 아시아축구연맹(AFC) U-23 아시안컵에서 일본에 0-3으로 패했다.

약 1년4개월 사이에 연령별 대표팀과 A대표팀이 4연패를 당했다.

모리야스 하지메 일본 감독은 "지금의 일본 선수들은 한국에 대해서 콤플렉스나 심리적인 면에서 뒤진다는 열등감은 전혀 없다"며 "자신

이 해야 하는 일에 잘 집중하고 어느 나라와 경기를 하더라도 대등하게 싸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아시아의 나라와 경기를 치른다면 높은 확률로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고 자신했다.

차곡차곡 유소년부터 경쟁력을 탄탄히 한 일본은 이번 대회에서 신예 후지타 조엘 치마(20·요코하마 F.마리노스)의 탄생에 열광하고 있다.

후지타는 6월 AFC U-23 아시안컵에서 주장을 맡았던 선수로 일본을 3위로 이끌었다. 한국전에서 소마 유기의 선제골을 이끄는 정확한 크로스로 도움을 올렸다.

나이저리아 아버지와 일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그는 이번 대회에 처음 A대표팀에 승선해 2경기를 소화했다.

한국전에서 2002년생 어린 나이답지 않은 안정감과 과감함을 보여주며 향후 한국의 경계 대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후지타는 "처음으로 A대표팀에 발탁돼 열심히 노력하고,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했다. 목표로 삼은 모든 경기를 소중히 여기면서 결과를 남길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리그에서 열심히 뛰면서 평가받을 것이다. 이를 통해 카타르월드컵에 갈 수 있다면 기쁠 것이다"고 했다.

/뉴시스



최근 호원대학교 복싱부가 창단식을 연 가운데 정강선 전북체육회 회장 등 관계자들이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복싱부는 총 4명(지도자 1명·선수 3명)으로 구성됐다.

대학 복싱부 최강을 꿈꾸며...

호원대 복싱부 창단식... 지도자1명·선수 3명

전북체육회(회장 정강선)는 최근 호원대학교 복싱부가 창단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복싱부는 총 4명(지도자 1명·선수 3명)으로 구성됐다.

앞서 지난해 고창 영선고가 복싱부를 창단하기도 했다.

이에 호원대는 이번 복싱부 창단으로 총 7개 전문체육 종목을 육성하게 됐다.

강희성 총장은 "복싱부 창단을 기쁘게 생각하며, 우리 대학은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과 우수 인재 발굴 등을 위해 스포츠단을 운영하고 있다"며 "체육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강선 회장은 "예전에는 도내 대학에 복싱부가 존재했지만 다 해체됐다"며 "호원대가 복싱부 창단을 해준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하며, 대학 최강 복싱부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최지만, 24일 만에 시즌 8호포 | MLB 볼티모어전서... 탬파베이, 연장 끝 승리

탬파베이 레이스 최지만(31)이 후반기 첫 홈런을 쏘아올렸다.

최지만은 28일(한국시간) 미국 매릴랜드주 볼티모어의 오리올파크 앳 캠프아일랜드에서 열린 2022 메이저리그 볼티모어 오리올스와 경기에서 4번 지명타자로 선발 출전, 홈런 하나를 포함해 4타수 1안타 2타점을 기록했다. 시즌 타율은 0.266을 유지했다.

첫 타석부터 대포가 터졌다.

최지만은 0-0으로 맞선 1회 2사 1루에서 상대 선발 타일러 웰스의 초구 93.4마일(약 150km)짜리 포심 패스트볼을 통타, 그대로 가운데 펜스를 넘기는 투런포를 날렸다.

지난 4일 토론토 블루제이스전 이후 24일 만에 터진 시즌 8호 홈런이다.

추가 안타를 뽑아내지는 못했다.

4회 선두타자로 나와 2루 땅볼로 물러났고, 6회에도 첫 타자로 나와 1루수 땅볼로 돌아섰다. 8회 1사 후에는 헛스윙 삼진을 당했다.

연장 6-4로 앞선 10회초 2사 2, 3루에선 고의 사구로 걸어내갔다. 그러나 후속타가 터지지 않아 홈은 밟지 못했다.

탬파베이 레이스는 연장 접전 끝에 6-4로 이겼다. /뉴시스



탬파베이 레이스의 최지만(왼쪽)이 27일(현지시간) 미 매릴랜드주 볼티모어의 오리올파크에서 열린 2022 메이저리그 볼티모어 오리올스와의 경기 1회 초 2점 홈런을 치고 동료 브렛 필립스와 세리머니하고 있다.

전북 아태 마스터스 자원봉사자 모집

종합상황실 · 수송센터 등 11개 분야

일반 1300명 · 통역 700명 등 선발

10월 28일까지 대회 홈페이지서 신청

2023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 조직위원회(위원장 김관영)는 대회 성공개최를 위한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모집하는 자원봉사자는 9월 간의 대회기간 동안 43개 경기장 참가자 등록센터, 수송센터, 종합상황실, 굿즈마켓 등의 장소에 배치돼 활동하게 된다.

이에 조직위는 원활한 대회 운영을 위한 각종 운영지원에 일반 자원봉사자 1300명과 의정, 언어 등을 위한 통역 자원봉사자 700명 등 총 2000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된 자원봉사자들은 내년 3월 발대식 이후 분야별 직무교육과 소양교육, 현장대응 훈련을 거쳐 배치된다. 특히 학

생 자원봉사 참여자들은 봉사활동 시간 인정을 비롯해 대회종료 후에는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포상도 주어진다.

오는 10월 28일까지 대회 홈페이지(www.apmg2023.kr) 참가등록 코너에서 신청하면 된다.

자격요건은 만 17세 이상(2007년 5월 12일 이전 출생자)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이강오 사무총장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개최되는 2023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적극 참여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면서 "우수한 재원들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해 국제대회를 경험할 수 있는 값진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2023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는 생활체육인의 국제종합체육대회로, 2023년 5월 12~20일 9일 간 세계 각국에서 1만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전라북도 일원에서 펼쳐진다. /정은성 기자

손 씻기 · 마스크 착용... 개인방역 수칙 준수하세요.

